

광주·전남 화제의 당선인

완도군수 3선 이어 국내 첫 2곳 단체장 기록

김종식 목포시장

막판까지 박홍을 평화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292표차로 대역전극을 만들어 낸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인은 '국내 최초 2곳 기초단체장'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.

김 당선인은 전남 완도군의 군정을 이끈 3선 완도군수 출신이다. 선출직 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군단위 기초단체에서 서로 옮겨가며 단체장을 하는 경우는 김 당선자가 처음이다. 80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김 당선자는 이후 전남도의 주요 요직을 비롯해 영암부군수, 목포부시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이다.

이후 고향인 완도군수로 내리 3선을 기록하며 해조류 박람회, 슬로시티 청산도 조성, 완도전복 브랜드화 등 완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공헌했다. 이후 광주시에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.

8년 만에 선거에 나선 만큼 어려움도 많았지만, 가장 힘들었던 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지지지역이자 현 박홍을 시장이 대항했다는 점이 걸림돌이었다. 하지만, 중앙당의 지원과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십분 발휘해 이를 극복하고 끝



한국 지방자치사에 4선 기초단체장이라는 진기록을 세운 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가 부인, 딸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.

을 이뤘다.

김 당선인은 "목포시민과 원 팀을 만들어 위대한 새로운 목포시대를 열겠습니다"

김종식 목포시장 당선자는 14일 "이 모든 결정은 목포시민들이 위기의 목포를 구해내고 발전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는 염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"며 이렇게 말했다.

김 당선자는 "목포를 서남권 경제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"면서 "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약속한 대양산단 내 수산식품중심타운 조성 예산 2000억원을 활용해 목포발전의 초석을 만들고, 해양관광도시 목표를 만들기 위한 공약을 실현시켜 목포관광 1000만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"고 강조했다. /고규석 기자 yousou@

총학생회장 출신...광주·전남 최연소 단체장

김병내 광주남구청장

6·13지방선거 광주·전남지역 최연소 기초단체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내(45) 당선인은 대학총학생회장, 강운태 국회의원 보좌관, 광주시 직속민원실장,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등 이색 경력으로 주목받고 있다.

특히 김 당선인은 보수성향이 강하고 탄탄한 정치 조직이 많은 광주 남구에서 당선을 하면서 '차세대 젊은 지역 일꾼'으로서의 정치 행보도 기대되고 있다.

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·전남 27개 자치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최연소다.

김 당선인은 광주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국회의원 보좌관, 광주시청 직속민원실장,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냈다. 지난 대선과정에 광주의 '반문(反文) 정서'가 높을 때 문재인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원팀장을 맡아 지역과 중앙을 오가며 민심을 다지는 등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.

올 2월말까지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김 당선자는 정당 및 입법, 행정, 국정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중앙과 지방의 두터운



14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뒤 더불어민주당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당선인이 아내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.

인맥을 쌓았다.

김 당선인은 "문재인 정부 성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"면서 "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, 남구를 더 크게 발전시켜 달라는 남구 구민의 시대적 요구의 결과이다"고 밝혔다.

또 "초심을 잃지 않고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"이라며 "자녀교육과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, 문벌이 안 되는 상인, 실업에 시달리는 청년, 노후를 걱정하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행정을 통해 실현해 나가겠다"고 덧붙였다. 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3%차 석패 후 4년간 바닥민심 다져 당선

송귀근 고흥군수

송귀근 고흥군수 당선인은 14일 "고흥을 개혁하고 바로 세우려는 군민의 뜻을 끝까지 잊지 않고 실천하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

송 당선인은 "제가 당선된 것은 변화를 바라는 고흥 군민의 승리"라며 "개혁과 군민 통합을 함께 이뤄 내겠다"고 약속했다.

송 당선인은 두 번째 도전 끝에 고흥군수에 당선됐다. 그는 앞선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39.40%의 득표율을 올렸지만, 3선 도전에 나섰던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중 현 군수에 3%포인트 차이로 석패하는 아픔을 겪었다.

이후 '와신상담'하며 바닥 민심을 다져 4년 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.

송 당선인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38세에 30대에 장성 부군수와 고흥 부군수를 역임하고 광주시 기획관리실장, 행정부시장,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 등을 지내는 등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성장해 온 '정통



송귀근 고흥군수 당선인이 지난 13일 당선이 확정된 뒤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아 들고 배우자와 함께 환호하고 있다.

행정관료' 출신이다.

그는 중앙과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것을 앞으로의 군정 운영에 최대 강점으로 꼽고, 고흥군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.

송 당선인은 "고향을 떠난 고흥의 아들

과 딸들이 귀향해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'귀향 고흥 만들기'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"며 "최고령 고흥을 장수복지 고흥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"고 밝혔다.

/주각중 기자 gjuu@kwangju.co.kr

민주당 바람 뚫고 두번째 도전만에 2%차 신승

정중순 장흥군수

정중순 장흥군수 당선인은 14일 "하나된 군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제일의 '행복장흥'을 만들겠다"고 포부를 밝혔다.

무소속 후보였던 정 당선인은 정당의 총력 지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중 후보(40.91%)와의 일전 끝에 44.21%의 득표율로 신승, 두 번째 도전 끝에 장흥군수로 당선됐다. '구두담이, 머슴살이로 성장한 정남진 인동초'라며 빈농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정 당선인은 농업중앙회 상무 등을 지내는 등 농업인 출신이다. 이 때문에 그는 장흥을 친환경 농·수·축산물 6차산업 매개로 육성하겠다는 주요 공약을 내걸었다.

그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군수직에 도전해 21% 득표율을 얻어 첫 번째 패배를 안았지만, 지역에서 꾸준히 주민들과 접촉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.

이를 통해 바닥 민심의 지지를 꾸준히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. 정 당선인은 "선거 과정에서 분열된 군민의 화합을 복원하겠다"며 "오직 장흥 군민의 화합과 발



무소속 정중순 전남 장흥군수 후보가 13일 오후 장흥군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부인 한혜옥씨의 손을 잡고 환호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겠다"고 강조했다. 그러면서 "농협, 축협, 수협, 산림조합, 농림축수산 관련단체와 함께 장흥이 6차 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소통 행정, 협력행정을 펼쳐 보겠다"면서 "농협에서 배운 경영철학으로 제 인생의 마

지막 봉사를 하겠다"고 약속했다. 또한, "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바른 행정, 열린 행정,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다"고 강조했다. /장흥=김용기 기자 kykim@

Advertisement for 'Your Summer Vacation' (당신의 여름휴가) featuring a waterfall and a festival scene. Text includes: '당신의 여름휴가', '남원을 선물하세요', '춘향과의 만남 · 지리산 트레킹', '“한 여름밤의 소리여행” 공연(7.22-8.15)', '정령치의 밤하늘과 별빛', '그리고, 편안한 잠자리'. Logo: 춘향남원 사랑의 1번지.